

## 화상·시각여정 : 근대 《홍설인연도기》의 매개변형과 지식함의 畫像·視覺旅程 : 近代《鴻雪因緣圖記》的媒介轉型與知識意涵

### ■ 강의 일정 및 주최

- 일시: 2017년 1월 16일(월) 17:0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대회의실(B203)
- 주최: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 강연자    마오 윌팡 毛文芳

타이완(臺灣) 타오위안(桃園)에서 태어나 타이완사범대학교에서 중국문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장화(彰化)사범대학교 국문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타이완 중정(中正)대학교 중국문학과 교수로서 학과장을 겸하고 있다.

명칭 문학, 문학과 도상(圖像), 여성문학, 근세 문화 등의 연구에 힘써 왔고, 오랫동안 타이완 과학기술부(科技部) 연구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로 주제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저서로 《新讀百喻經》(1993), 《晚明閒賞美學》(2000), 《物·性別·觀看 : 明末清初文化書寫新探》(2001), 《圖成行樂 : 明清文人畫像題詠析論》(2008), 《董其昌之逸品觀》(2011), 《卷中小立亦百年 : 明清女性畫像題詠探論》(2013), 《詩·畫·遊·觀 : 晚明文化及審美意涵》(2017예정), 《行樂·讀畫 : 明清名流的寫照題詠》(2017예정), 편서로 《中國歷代才媛詩選》(2011), 《歷代女性詩詞鑑賞辭典》(2016) 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洪瑞焜學術出版獎, 國科會甲種研究獎, 香港大學中文系學術論文獎, 中正大學學術著作獎勵, 國科會人文專書出版補助 등을 수상하였으며, 방송 단막극과 몇 편의 단편 소설 및 산문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中正漢學研究》(THCI Core)총편집(2009~2015),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방문학자(201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방문학자(2014), 중국 명대문학회(籌) 해외이사(2011~현재)를 역임하였다.

## 강연 개요

畫像은 인류가 시각 경험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전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 晚淸의 관원 麟慶(1791~1846)은 저작 《鴻雪因緣圖記》에서 오랜 전통을 계승하여 畫蹟을 저본으로 240쪽의 도판을 繪刻하여 그림과 기록을 병행하였다. 이는 표현·서술을 圖像化하는 史傳的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鄭振鐸은 이를 평가하여 ‘自傳體木刻畫集’으로서 麟慶 자신의 일생의 풍부한 이력을 펼쳐 보여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시각적 여정으로 이끈다고 하였다. 道光 연간부터 光緒 연간에 이르는 약 70년간 이 책은 口述, 繪圖, 製記, 木刻, 付梓, 石印, 照相, 번역 등의 제작 방법을 통해 여러 판본이 출현하여, 근대 繪寫-生産-印製-傳播 등을 거쳐 완성된 畫像 텍스트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가 되었다.

필자의 고찰 작업은 문인의 自傳적 글쓰기, 지리 탐색의 풍조 및 지리 감성, 圖畫 감상 시대의 반영, 매개전환과 복제기술, 관찰 시선의 새로운 변화, 서정적 표현과 일상적 서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본 강연에서는 주류 문학연구에서 소홀히 하는 《鴻雪因緣圖記》 유형의 텍스트가 지닌 문헌 가치를 드러내고, 여러 판본의 귀적 유동을 거친 ‘매개’ 변화 기제를 탐구하며, 그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목록학 형식과 지식 형태를 고찰하고, 아울러 그것이 조선의 「平生圖」 혹은 일본의 「行樂圖屏」 등 근세 동아시아 漢文化와의 상호 영향 가능성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자료 소개: 《鴻雪因緣圖記》 第二集上冊 「西山鼓棹」 부분

